

“부처님 마음 알고 법 설해야 깨달아”



일오 스님(태안사 선원장)

동리산 태안사로 가는 숲길은 적막하였다. 포장되지 않은 숲길은 자연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계곡을 타고 흐르는 낮은 물소리는 동리산의 맑은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세월의 흔적인 듯 푸른 이끼를 이고 있는 정심교(情心橋), 반야교(般若橋), 해탈교(解脫橋)를 지나면 마음은 알 수 없는 고요함으로 가득 찬다. 세 개의 다리를 건너 능파각(凌波閣)에 다다르면 ‘이 곳을 건너면서 세속의 번뇌를 던져 버리고 불계에 입문하라’는 글귀와 마주하게 된다. 누각이자 다리인 능파각은 보기 드문 건축 양식이라 눈길을 끌기도 하지만, 능파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예상못지 않기에 그곳에서 깊은 심호흡을 하게 된다. ‘능파(凌波)’란 미련도 욕심도 없이 가볍고 우아하게 걷는 걸음걸이를 뜻한다. 해탈교에서 미처 버리지 못한 탐진치가 있다면 능파각에 내려놓고 가볍게 피안(彼岸)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의미일 듯 싶다.

태안사는 우리나라 선종이 처음 열린 신라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이며, 적인선사 혜철 스님이 창건하였다. 혜철 스님은 당나라로 건너가 서른해 가량 그곳에서 공부하였고, 혜능 선사의 법을 이은 지장 선사로부터 심인(心印)을 이어 받았다.

신라로 돌아와서는 태안사에 동리산문을 열고 임제 선종을 일으켰다. 조선 시대를 거쳐 근대까지 혜철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등을 밝혀왔으나 6.25전쟁으로 대부분의 당우가 불타버렸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청화 큰스님께서 새롭게 중창하여 오늘날의 사격을 갖추게 되었다.

1200년 동안 이어져 온 태안사 법등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있는 일오 스님은 40년 넘게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한 선사이면서도 초기경전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보기 드문 분이다. ‘교외별전 불립문자’라 해서 경전 공부를 도외시하는 선가의 풍토에서 어떻게 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 출가하여 2년 넘게 화두를 들었어요. 은사 스님으로부터 ‘초발심자경문’을 배운 것이 전부였는데, 이것만 알고 수행해 나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화두참선을 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참선해서 깨치면 그만이니 글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경전 공부를 게을리 한 탓이지요. 부처님 말씀을 좀더 깊이 알고 싶어 동국역경원에서 나온 <아함경> 한 질을 구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을 읽어나가면서 너무 감동해서 수건을 옆에 두고 눈물을 닦아가면서 읽었는데, 지금도 그때의 감격이 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신 후 ‘내가 증득한 것을 지금 설해야 할 필요가 없다. 탐욕과 성냄에 패배한 자들은 이 법을 잘 깨달지 못하리라. 탐욕에 물 들고 암흑에 덮여 있는 자들은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법전 사항파티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법을 설하지 않으면 살아 있는 자는 타락하지만 설하면 깨달는 자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부처님께 권청하였다. 일오 스님은 특히 ‘법권정설’ 대목에서 부처님께서 만약 법문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도리를 어찌 알겠는가 싶어 눈물이 절로 흘러나왔다.

“무아, 연기만 제대로 이해하면 초기 경전과 대승경전과 선어록이 딱 들어맞음을 알 수 있어요.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 그리고 선어록이 표현만 다를 뿐 그 의미는 같습니다. 조사어록 또한 부처님 가르침의 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을 말한다. 초기경전에서는 수행의 덕목을 팔정도라고 요약했다면 대승경전에서는 육바라밀이라 했다.

“팔정도의 첫째 덕목이 정견인데, ‘내’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혼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상주론(常住論)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단멸론(斷滅論)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존재에 관한 가르침을 퍼신 것이 무아연기(無我緣起)입니다. 연기의 근본은 상견(常見)과 단견(斷見)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두 극단에서 벗어나야 만이 ‘나’라는 존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초기경전에서는 무아(無我)라고 했는데 대승경전에서는 진아(眞我) 또는 ‘주인공’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승경전의 ‘진아’란 ‘깨어있는 순수 의식 다시 말하면 분별을 여린 청정심’을 가리키기에 부처님 당시 인도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아트만(atman, 영혼)과는 다른 것이다. 불교가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교리 중 하나는 무아 곧 자아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아인데 무슨 윤회가 있으며 나는 누구인지’ 탐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아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지요. 태어났다고 하지만 조건과 인연에 의해서 잠시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을 태어난 것으로 보지 않으니 불생(不生)입니다. 물에서 물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죽는 것 또한 없으니 불멸입니다. 이처럼 나 자체가 조건 따라 인연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것이니 불생 불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가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여기에 집착하여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생의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지가지 업을 쌓아서 끝없는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에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업(業), 업보(業報)라는 말일 것이다. 일오 스님은 “업보라고 하지만 업이 무슨 보물처럼 창고에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업 또한 실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나도 공한 것인데 업이 어디 있겠는가? 대승에서는 본래 부처라고 하여 증생도 부처도 없다고 하는데 선약을 따질 업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라.

“나도 공하고 업도 공한 것으로 보고 뭐야 들어가야 업이 소멸됩니다. 만약 업이 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업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스님의 말씀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다.

‘나’라는 것은 끝없이 변화하고 있기에 그야말로 ‘찰나생 찰나멸(刹那生 刹那滅)’인 것이다.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부처님은 반복해서 가르쳤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찰나생 찰나멸이란 강물은 찰나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지만, 강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다. 만약 밤새도록 타고 있는 등불이 있다면 초저녁에 타는 불과 밤중에 타는 불과 새벽에 타는 불

‘내’가 없음을 바로 알고 보는 것이 정견 청정한 마음 쓰기 위해 정진해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초기경전을 꼭 보라고 권합니다.”

일오 스님은 팔만대장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라고 했다. 사성제란 고집멸도(苦集滅道)를 가리키는데, 고(苦)란 생로병사를 비롯하여 세상의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생로병사 속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끝없는 고통 속에 있기에,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출가수행을 하였다. 고의 원인을 말한 것이 집(集)인데, 고의 발생 원인은 갈애(渴愛)로 인한 집착이다. 멸(滅)은 고의 소멸을 말하는데 번뇌의 근원인 집착과 갈애를 여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말하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였다. 팔정도란 정견(正見)·정사유(正思惟)·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明)·

사군자 떡기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기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 전통
조상의 열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수에 2500원 (5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팽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넘칩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나의 체질을 알아야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알고 먹어야 내 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고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병들게 만든다면 체질을 알고 먹는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간 얼굴생김새, 목소리, 체형, 살갗을 만져보고 연구 노력하여 스스로 터득하여 얻어낸 좋은 분을 만나서 체질을 알고 병을 고쳐주세요. 체질을 알아야 맞는 처방으로 병도 고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연구 · 노력하여 터득한 분을 만나보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행운이 열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무료로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특례를 드립니다

연락처 011-9373-3778